

축산업계

소식

UR 오퍼리스트 제출

쌀, 닭고기 등 15개 NTC품목 협상진행

정부는 GATT 사무국에 농산물분야 오퍼리스트를 지난 30일 제출했다. 국내 시장개방과 관세정책,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대상, 감축폭 일정 등을 상세히 밝힌 오퍼리스트를 제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 및 전략이 밝혀졌다.

주요내용은 쌀, 닭고기, 보리 등 주요 농축산물 15개 NTC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완전자유화하고 91년부터 연도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개방 첫해에는 국내의 가격차이를 관세로 부과하여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줄여 나가고 마지막 해에는 초기관세의 최대 30%까지 감축토록 한다고 했다.

완전자유화에서 제외되는 15개 NTC품목은 쌀, 보리 등 기초식량은 완전수입자유화 조치에서 제외하는 대신 현행 NTC품목중 수입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 일정 범위내에서 쿼터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관세는 기존관세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보조금감축은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6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7년부터 감축을 시작한다. 감축 이행기간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총감축폭은 30%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 수출국은 우리나라의 개방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더 많은 시장개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3회 전국축산진흥대회 성료

이재식 부회장 장관 표창



제13회 전국축산진흥대회가 지난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한국 마사회에서 전국의 양축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량가축을 선발하여 종축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축의 자질을 개량하고 가축개량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양축단가로 하여금 우수가축의 사육으로 양축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가축 품평회 외에도 축산물 가공품, 가축약품, 사료, 축산기자재 등의 전시회도 함께 있었다.

한편, 본회 이재식 부회장은 '90축산진흥대회에서 우수 실용계의 공급으로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축산장기발전대책 교육

2001년까지 2조234억원 투용자

농림수산부는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축산업을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축산장기발전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9월21일부터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였다. 축산장기발전대책은 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이 기간중 투용자계획은 2조234억원으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7,960억원, 구조개선에 5,920억원, 경쟁력 제고에 2,567억원, 유통개선에 1,407억원, 공해방지 등에 716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신구범 축산국장은 축사시설과 공해방지 유통구조개선에 역점을 두며, 기본적으로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정책으로 10년 이내에 농업중 축산업 비중을 3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대책없는 시장개방 농가소득 연5조원 감소
농촌경제연구원 26개 품목 수입피해 분석**

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축산물이 전면 개방될 경우를 가정해 26개 주요농산물 중 19개 품목 피해가 연 4조9천7백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녹두, 마늘, 복숭아 등 6개 품목은 피해가 없거나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 연간 예상피해액은 쌀이 3조7천여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콩이 1천6백여억원, 고추 3천2백억원, 쇠고기 2천6백억원, 돼지고기 38억원, 우유 및 유제품 4백62억원이고 닭고기가 3백39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시장개방으로 생산을 포기하거나 작목을 전환해야할 면적은 보리가 96.7%로 가장 높고,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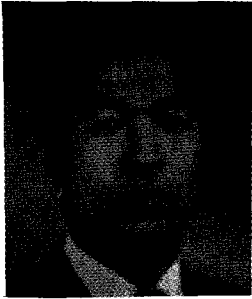
이 37.9%인 41만여평으로 가장 많다. 땅콩은 55.7%, 마늘 38.2%, 고추 25.5%, 콩 25.1% 등이다. 축산물의 경우 소는 전체의 10.6%(15만마리), 닭은 6%(6백20만수)의 사육을 포기해야 한다.

◇ 26개 주요농축산물 개방피해 추정

(88년 기준)

품 목	생산농가 (천가구)	재배면적 (천정보)	농업생산 비 중 (%)	국내외 가격차 (배)	개방시 피 해 (억원)
쌀	1,632	1,262	37.9	4.4	37,436
보 리 및 맥 주 보 리	70.5	205	0.5	6.9 2.4	1,032
콩	1,168	154	1.4	5.6	1,621
옥 수 수	138	26	0.3	4.5	308
감 자	503	22	1.0	4.5	379
고 구 마	700	26	1.2	1.4	187
녹 두	189	8.3	0.1	7.0	
팥	635	32		7.0	375
호 프	1,662			1.0	0
쇠 고 기	702	1,589	5.2	2.3	2,597
돼 지 고 기	261	4,852	7.8	1.5	38
닭 고 기	194	58,467	3.3	1.8	339
우 유 및 유 제 품	36	480	3.3		462
사 파	61.8	39	3.0	1.3	0
배	15.9	8	0.7	1.7	175
포 도	38	17	0.8	1.8	407
복 송 아	37	14		1.4	0
감 귤	21.4	18	1.9	1.8	455
단 감	21	10	0.3	1.3	0
고 추	1,051	89	4.2	3.7	3,202
마 늘	564	49	2.2	5.7	
양 파	55	12	0.5	1.3	0
생 강	13	4.4	0.3	2.3	159
참 껌	1,029	94	2.4	10.9	226
땅 콩	97	22	0.5	5.5	305

국립종축원장에 박태진씨 취임



국립종축원 박태진 중소가축과장이 신임 국립종축원장에 취임했다.

박태진 원장은 진주농고와 진주농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농사원, 축산시험장과 국립종축원 경영관리과장, 대전지원장, 중소가축과장을 역임했다.

일본 채란양계인 방한 교토생협 회원 13명 내한

UR협상과 관련하여 한국 채란양계산업을 둘러보기 위해 지난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교토생협 소속 회원 13명이 방한하였다.

이들은 현재 일본의 계란값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 주변정세가 비슷한 한국을 시찰하기 위해 안성에 있는 홍일농장(대표 한 순)과 쌍룡농장(대표 장대석)을 각각 방문하였다.

현재 일본의 계란 농장출하가격은 kg당 240엔으로 개당 17~18엔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UR협상에 관한 결의안 채택 주요 농가소득작목 수입할 수 없다 입장 천명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UR협상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 농가소득을 위한 가격지지정책은 감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영세소농이 대부분인 농산물 수입국이 대농위주의 수출국과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같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쌀을 비롯한 주요 품목은 기초식량 보호라는 의미와 농가소득의 대종을 이루는 기간작물이라는 견지에서 어떠한 경우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상에 임함에 있어 우리나라 특수한 여건이 협상결과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UR협상 이후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경제운용 방식의 과감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구조조정사업,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장단기 처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조속히 국민에게 제출토록 촉구하였다.

우보 오세정 교수 회갑기념집 봉정 「계(鷄)의 특수관리」 발간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우보(牛步) 오세정 교수 회갑기념사업회(준비위원장 이재식)는 지난 27일 호텔 소피텔 엠버서더에서 기념집 “계의 특수관리” 봉정식을 성대히 가졌다.

후학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봉정식에는 학계, 업계, 친지, 제자 등 4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오세정 교수는 서울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축산시험장 가금계 근무, 상록목장 대표, 건국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면서 본회 회장, 한국가금학회장,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장 등 양계산업 산학협동을 통한 발전을 위해 40여년을 노력하였다.

「계의 특수관리」는 온도, 습도, 환기 등 환경관리와 점등관리, 강제환우, 부리자르기, 탈항, 계분처리에 대해 자세히 수록되었다.

허가 부화업수 245개소

종계장은 231개소

농림수산부 부화업, 종계업 현황자료에 의하면 90년 6월말 부화업수는 245개소, 종계업수는 231개소로 집계되었다.

부화업수는 전년동기 대비 1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총발육기는 2,338대, 발육능력은 4,250만대로 각각 5%정도 증가하였다. 종계업수 231개소로 충남 69개소, 경기 65개소, 경북 24개소, 전북 21

개소 등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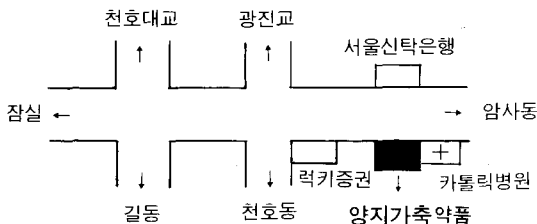
양계·양돈협업단지 시범사업 실시

농촌진흥청 각도 1개소씩 조성

농촌진흥청은 각도에 1개소씩 양계·양돈협업단지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양계 집단지역을 대상으로 협업단지를 조성 축사개량, 자동화, 공동구 판매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양계협업단지는 이미 포천에서 성공을 거두어 8개소를 추가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9개소 115농가에 149만수 정도가 협업단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동물약품도매전문

- 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동물약품 도매상 양지가축약품
- 같은 약이라도 처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상담환영 (질병상담, 판매점 개설상담)
지방주문환영 (신속, 정확한 발송)



양지가축약품상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57-8
전화 (02) 478-2208
477-9332
Fax. (02) 488-8627